불자 세상보기

녹조라떼 4대강 'No'… 청정성 회복해야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

말이 많은 사업치고 그대로 지나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4대강 사업으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된다. 단군 이후 최대사업이라 하면서도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최단기간 내에 착공한 결과로 인한 부작용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조 원이 넘는 최대 비용으로 과연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였는지, 4대강 사업이 끝난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다. 골재를 팔아 사업비를 충당하고, 엄청난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도 기대 이하였지만, 사업 전부터 걱정했던 여러 일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4대강의 효과로는 4대강 중간 중간에 설치한 보로 인해 물을 가둬둠으로서 물의 양은 증가하였고, 강둑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와 공원 등 친수공간으로서의 이용을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은 보다 광범위하고 크다. 4대강 전체를 직강화해 구조물화 함으로서 기존의 하천생태를 붕괴시켰으며, 강의 모래들이 사라지고, 초지화했고, 준설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다시 준설해야 하고, 하천수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농경지수로와 높이차가 발생하여 지하수위가 변화했다. 하천의 침식이 가중되어 하천수로 및 구조물이 위험해지고, 추가로 천문학적인 관리비용이 소요되며, 지속적인 관리부재로 인해 부실이 가중되는 등 악순환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녹조가 창궐하여 맑고 푸른 하천이 녹차 죽 같은 짙푸른 하천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그 어떤 사과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아직도 4대강의 환상을 그대로 되뇌이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인은 단지 정치인일 뿐이고,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문가인양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낙동강의 보건설로 인한 녹조문제이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천만 명 이상의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강들이 4대강 이후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 탓이라고 날씨 탓을 하거나, 근거 없는 핑계만을 대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예측자료에 의하면, 낙동강에 8개 보가 건설되어 구간별 체류시간이 사업전의 18.35일에서 사업이후 163.94일로 8.9배(실측자료로는 4.1배)가 증가되

유속 감소로 자정작용 축소
녹조가 창궐해도 폐수 탓만
정책 실명·책임제 필요하다

는 등 급격한 하천환경의 변화가 단기간에 일어났다.

옛말에 고인 물은 썩는다고 결국 하천 내의 유속이 감소하면서 여름철 온도도 높아가고, 그에 따라 하천의 자정작용은 낮아지면서 녹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장들은 4대강 사업때문이 아니라, 폐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말하는 폐수는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4대강사업 이후 폐수처리가 강화되면서 감소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만일 폐수 탓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자체장의 직무유기 사안이기도 하다. 지금에 와서도 왜 자꾸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인양 사실을 왜곡하는지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갑갑한 일이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라도 애초부터 4대강은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가 많은 일부 보를 철거하는 등 4대강의 청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작해야 한다.

잘못 끼운 단추는 풀어헤치고 다시 맞추어가야 하듯이 이제 4대강도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한다. 잘못을 고치는 것은 하루라도 빠른 것이 좋다. 그리고 다시는 4대강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증과 정책실명제와 책임제를 도입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기자 칼럼

신라왕경, 무령왕릉 그리고 병마용갱



신성민
취재부 차장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조계종 교육원에서 주최한 중국선종사찰 순례를 다녀왔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가져다 놓은 신문에 모 일간지에서 신라왕경 복원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기획기사를 접했다. 다음날까지 이어진 기사는 충격적인 부분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경주시 산하 전문기관과 민간 발굴업체가 신라왕경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 총괄 전문 컨트롤타워가 없어 장기 연구·복원계획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더욱 문제가 되는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발굴사업들이다. 수십년이 걸리는 고분 발굴을 5년 안에 해치우겠다는 내부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비판이 확산되자 문화재청은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발굴과 복원은 모두 충분한 검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틀에 박힌 대답을 내놨다.

신라왕경 복원 사업 논란을 보며 20세기 한국 고고학계의 최대 발굴 성과이면서 최악의 사고인 '무령왕릉 발굴'이 떠올랐다. 1971년 7월 5일 공주 송산리 고분군 6호분 배수로 공사중 무령왕릉이 발견되고 이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에 퍼진다. 7월 7일 발굴단이 파견되고 7월 8일 발굴이 시작됐지만, 몰려든 기자들과 구경꾼으로 발굴장은 아수라장을 이뤘다. 기자들은 빨리 입구를 공개하라고 독촉했고, 결국 발굴단은 이례적으로 발굴 현장을 공개했다. 이후 17시간 만에 '개봉'에서 '유물 수습'까지를 서둘러 해치웠다. 큰 유물만 대충 챙기고 나머지는 자루에 쓸어 담아 나올 정도였다.

발굴보다는 그저 쓸어 담았고, 후유증은 컸다. 예컨대 무덤에서 나온 3천여 개의 구슬은 마구 섞인 채 수습돼 본래 형태나 용도를 알 길이 없는 채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20세기 최대의 발굴 성과가 최악의 발굴 참사로 변화하는 순간이었다.

당시 발굴을 담당했던 김원룡 발굴단장은 이렇게 회고했다. "사람들이 더 밀려오기 전 발굴을 끝내기로 작정해 밤을 세우며 발굴작업을 진행시켰고, 이에 고분이 갖고 있던 많은 정보들을 내 실수로 영원히 모르게 하고 말았다. 이는 나라와 국민에 대한 큰 죄가 됐다."

이번 중국 선종사찰 순례에서 개인적인 성과는 진시황릉과 병마용갱을 직접 봤다는 것이다. 병마용갱과 진시황릉은 지금도 발굴이 이뤄지고 있다. 1974년 병마용갱 발견 당시 소식 접한 일본과 독일은 발굴과 복원을 도와줄 테니 유적의 수익을 30년동안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발굴에 대한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다면 100년 뒤를 기약하자"는 게 이유였다.

현재에도 발굴이 진행되는 병마용갱은 발굴된 것보다 발굴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그럼에도 중국 문화재 당국은 함부로 발굴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 대만 왕보(旺報)는 9월 5일 "문화재 발굴·보존 기술이 충분히 발전할 때까지 중국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꼽히는 진시황릉을 발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왕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문물국과 과학기술부 등은 최근 중국 시안(西安)에 있는 진시황릉에 대한 공동 탐사 결과, 향후 30~50년간 진시황릉을 발굴하지 않는 것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는 발굴이 훼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화재 발굴에는 적지 않는 재원과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문화재 발굴은 어떠한가. 황룡사를 포함한 신라왕경 복원은 졸속 논란이 불거지며 잡음을 내고 있다. 더 나은 발굴을 위해 당장의 성과를 내지 않는 진시황릉의 사례를 반면교사 해야한다.

社說

한국불교 자비 씨앗, 널리 퍼지길

조계종과 (재)아름다운동행의 숙원 사업인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아름다운동행은 9월 5일(현지시각)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키감보니 무와송가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하 보리가람대학)' 개교식을 개최했다.

보리가람대학 개교는 2013년 9월 첫 삽을 뜬 후 3년 만의 결실이다. 더욱 의미있는 것은 한국 불교계서 최초로 아프리카 대지에 펼친 교육 불사이면서 모두 전국 사찰서 스님들 및 신도들의 후원을 통해 이뤄낸 쾌거라는 것이다.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마련한 금액은 총 43억4400만 원(8월 30일 기준)에 달한다.

보리가람대학은 척박한 대지를 초록빛으로 바꿀 미래 인재들이 양성된다. 총 4만여 평 부지에 교실 6개와 교무실, 행정실, 도서관, 강당, 화장실, 주방 및 식당, 학교정원 등을 보유한다. 특히 전교생 기숙생활을 위한 남녀 기숙사 각 1동과 교사 관사를 비롯해 대규모 실습공간으로 농업실습장과 가축실습장을 갖췄다.

탄자니아의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9월 말부터 60명 학생이 본격 수업에 들어가며, 3년 간 원예 등 교육을 받으며 전문학사 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다. 입학비와 수업료는 전액 무료다.

한국불교의 자비의 씨앗은 아프리카 대지에 뿌려졌다. 이제는 의미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물과 거름을 잘 줘야 한다. 안정적 운영이 화두라는 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도선언처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한다.

보리가람대학을 필두로 한국불교의 자비 씨앗이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해 본다.

조계종 직장협의회 구성 환영한다

조계종 총무원이 종교계 최초로 이런 종사자들의 근무와 사업 참여 등을 협의하는 노사협의회 구성을 결정했다. 9월 1일자로 총무원과 종무원조합이 각각 4명씩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 노사협의회는 사회법상 의무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단체라는 특성으로 그동안 구성되지 못했다.

그동안 교단 내 스님들 외의 재가근로자들에 대해 '노동'보다 '봉사'의 개념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에서 보면 고용주인 성직자와 생계가 달려있는 피고용주인 재가자는 출재가의 신분이 겹쳐 사회에서보다 더 불평등한 관계를 맺곤 했다. 혹여 노동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면 봉사의식이 부족해서라는 등의 시선을 받곤 했다.

노동에 대한 인식변화와 보장은 불교 종무행정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것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통과된 사안은 사측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불교계로 보면 종권의 변화에도 고용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종책 집행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번 조계종 노사협의회 구성 결단은 종교계 전반에 노사문화 정착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웃종교계는 불교계보다 노동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중요한 시점인 만큼 종교계를 아우르는 노사문화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각 종교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교리를 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곳곳의 노동문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는 종교 내의 노동문제에도 눈을 돌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범패·작법무·의식과정 학인모집

▼ 아래와 같이 제 14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 **범패·소리과정(5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오후 2시 ~ 3시 10분) 사십구재·천도재·장엄 및 제사 준비설명 등 전 과정 간단한 이론 강의

■ **작법·무용과정(5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오후 3시 30분 ~ 5시)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진언바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6년 8월 ~ 2016년 9월 21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8)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 529-6708 FAX : 032) 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안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